

[사회]

자리 비울 때 메모 30초... 휴대폰 끄기 5초...

도서관의 '아름다운 3분'

■ 전남대 공익광고 패러디 '화제'

전남대 경영학과 4학년 신모(여·23)씨는 도서관 열람실 입구 주변에 앉지 않는다. 사람들이 수시로 들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법학과 1년 김모(22)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법학과 1년 김모(22)씨는...

공익광고 패러디(parody)가 전남대 도서관에 등장했다. 도서관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알리고...

잘못된 문화 바꾸기
도서관자치위 등 캠페인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
기분 좋아져 공부도 잘돼요"

사를 앞두고 최근 '도서관 이용문화 이것만은 고치자'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전대신문이 패러디한 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김근)가 최근 방영하고 있는 '신문배달원이 잘못된...

전대신문은 '봉사=상대방에 작은 배려'의 공식을 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열람실 안에서 휴대폰 꺼두는 시간 5초, 장시간 자리 비울 때 포스트잇(post-it·메모지)에 메모하는 시간 30초..."

"도서관자치위원회"도 최근 '포스트잇 붙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To, 메꾸기. 오후 2시까지 자리 사용 가능합니다. 열공하세영~(^^*)" 오후 4시까지 자리비웁니다.

자치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관(25·전남대 전자정보통신 3년)씨는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메...

■ 도서관의 '아름다운 3분'

- 장시간 자리 비울 때 포스트잇에 메모하는 시간 30초
• 열람실 안에서 휴대폰 꺼두는 시간 5초
• 친구들과 이야기하러 휴게실로 가는 시간 1분
• 누군가 다른 이의 짐을 뒀다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5초
• 소음에 괴롭다면 웃으며 부탁 한 마디 하는 시간 10초
• 공부 끝난 후 짐을 집에 챙겨가는 시간 1분

<출처:전대신문>



잘못된 도서관 문화를 바꾸자. 전남대학교 도서관 이용 학생들 사이에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포스트잇을 붙여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뚜기"를 배려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연아(여 20·법학과 1년)씨는 "책상에 붙여있는 포스트잇을 보면 '작은 배려'에 기분이 좋아져 공부 잘되는 기분이 든다"며 "학생들이 조금씩만 상대방을 배려하면 도서관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쌍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車보험료 최고 20% 할증

음주와 무면허, 쌍소니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 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쌍소니 사고의 경우 1년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1년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1년 적발 때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할증이 안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9월1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을 5월1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무면허·음주운전, 쌍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의 경우에는 과거 1년),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

이들 6개 위반 항목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과거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 쌍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까지 2배 높아진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광주·전남 국제결혼가정 자녀

기초학력 부진 심각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혼혈아)의 기초학력 부진현상이 내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3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기초학력 미달자 현황'(올해 3월말 기준)에 따르면 광주지역 혼혈학생 133명(초등 118명, 중등 8명, 고등 7명) 중 기초학력 미달자는 10명(초등 9명, 중등 1명, 고등 0명)으로 7.5%를 차지했다.

전남은 혼혈학생 947명(초등 878명, 중등 54명, 고등 15명) 가운데 5.5%인 52명(초등 48명, 중등 3명, 고등 1명)이 기초학력 미달자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의 전체 혼혈학생 1천800명의 92.2%(996명)가 집중돼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5.7%로, 국내 초등학생 평균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인 1.45%를 크게 웃돌았다. 중등은 62명 중 4명(6.5%), 고등은 22명 중 1명(4.5%)이었다.

한편 전국의 혼혈학생 7천998명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7.7%를 차지했다. /황태기자 hwangtae@

차량 10부제 강화·냉난방 온도 준수

광주시, 에너지 절약 추진

광주시는 23일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기로 하고 실내조명 격등 및 창가 조광 소등, 10부제 위반차량 출입통제, 승강기 홀·짜증 운행(4층 이하 도보 이동),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중·대기업과 병원, 학교 등 38개 에너지 다소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이행사항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주시·자치구·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감시단을 운영해 차량 10부제 이행여부 점검, 나홀로 차량 실태조사, 야간 영업장 간판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유용민 광주시 에너지관리담당관은 "우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벌이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정책에 맞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강제적인 에너지 소비억제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황사 북상'으로 4월 24일 (음 3월 27일) <전국날씨>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 Korea,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서울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Table showing the daily weather forecast for the week of April 24th,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weather icons.

광주·전남 오늘 '황사 공습'

광주 기상청 예비특보 발령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다시 한 번 강력한 황사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오전을 기해 광주·전남 지역에 '황사예비특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µg/m³)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지난 21~22일 사이에 내몽골(內蒙古)과 황토 고원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 때문으로, 북서풍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상청은 또 "상층 3~9km 부근에서도 북서풍이 황사띠 쪽으로 불고 있다"며 "상층풍을 따라 황사띠가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4일엔 노약자나 어린이는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일반인들은 과격한 실외 운동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황사는 24일 밤 늦게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광주의 경우 지난 8일 물 들어 최고 농도인 미세먼지 439µg/m³의 황사가 내습했다.

'음주 손실 한해 14조9천억원'

연대 정우진교수 논문

지난 2000년에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무려 14조9천352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팀은 최근 예방의학저널에 발표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추산했다.

연구팀은 음주 관련 의료비와 숙취·결근에 따른 생산성 감소,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인력 손실, 재산피해 등 음주로 인해 초래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이중 생산성 감소 및 손실액이 전체의 42.08%인 6조2천845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인력 손실액이 4조4천91억원(29.92%), 주류 소비 지출 3조37억원(20.11%) 등의 순이었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various courses like 'Public Administration' and 'Real Estate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list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and their benefits.

Advertisement for 'Mumung High School' (무등고시학원) promoting exam preparation courses for public service and university entrance.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Naeyoung Education' (광주곽내영교육학) highlighting exam preparation and career counseling services.

Advertisement for 'Modern Vocational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detailing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yeongnam University' (경남대학교) featuring a 'Meet/Deet' event and other academic programs.